

## 외래 잡초 발생 및 방제전략(6)

# 서양민들레와 민들레

(common dandelion)

민들레는 4~5월 농경지, 과수원내, 목초지, 잔디밭, 도로변 등에서 피는 노란색 꽃이다. 대면적으로 발생시 디카비액제나 메코프로프액제 등으로 경엽처리하면 효과적이다.

봄철인 4~5월 농경지, 과수원내, 목초지, 잔디밭, 도로변 등에서 노랗게 피는 꽃의 대표적인 것이 민들레이다. 이들 민들레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민들레(*Taraxacum platycarpum*)와 유럽이 원산지인 서양민들레(*T. officinale*, 영명 : common dandelion)으로 나눌 수 있으나, 도시 주변에 피는 민들레는 거의 대부분이 서양민들레이다.

민들레와 서양민들레는 꽃 색깔이 모두 노란색이고 꽃잎이 아침, 저녁으로 열리고 닫히는 감광성 현상이 있는 것 그리고 꽃대가 개화기와 결실기에 현저히 길어지는 점 등은 비슷하나 다른 점이 더 많다. 민들레는 꽃이 서양민들레에 비해서 노란색이 약간 연하고 꽃이 4~5월의 봄에만 피고, 꽃가루가 있어야 종자를 형성하는 양성생식만을 하고, 바깥쪽 꽃받침(총포)이 안쪽 꽃받침에 붙어 있으며, 꽃대는 꽃이 필 때



이인용  
농촌진흥청

와 종자가 익을 때에 크게 신장을 한다. 그러나 서양민들레는 꽃의 색이 진하고, 꽃은 봄에 주로 피지만 4월부터 9월까지 일년 내내 필 수 있다. 꽃가루가 없어도 종자를 만드는 단위생식을 하여 번식능력이 높으며, 바깥쪽 꽃받침(총포)이

뒤로 젖혀져 있고, 꽃대는 종자가 익을 때에만 크게 신장을 한다.

서양민들레가 많은 이유는 첫째, 자생 민들레는 발아에서 개화까지 몇 년이 걸리지만, 서양민들레는 생장이 빨라 종자가 발아하는 그 해에 개화할 수가 있다. 둘째, 자생 민들레는 봄에만 꽃이 피지만, 서양민들레는 봄부터 여름, 때로는 가을에도 피며 셋째, 자생 민들레는 자가불화합성으로 타가수분을 하지만, 서양민들레는 꽃가루가 없이 단위생식을 하므로 번식력이 대단히 높다. 또한 도시 주변의 급격한 환경과 피가 타가수분을 하는 민들레는 적응하기



민들레와 서양민들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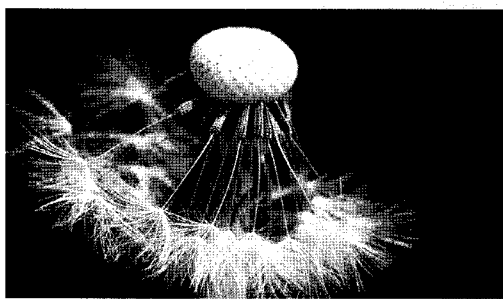
자생민들레

어려운 반면에 단위생식을 하는 서양민들레는 적응하기 쉽다.

모든 민들레는 땅속 1m까지 깊이 뿌리를 내려 추운 겨울을 보내며, 뿌리는 잘려도 잘린 만큼 개체수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민들레 종자 위의 관모(깃털)는 종자를 멀리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한다. 민들레의 꽃대는 꽃이 필 때와 종자가 익을 때 갑자기 늘어나는데 꽃이 피어 있을 때는 똑바로 서 있다가, 꽃이 지면 땅바닥에 눕고 종자가 만들어지면 다시 줄기가 일어선다.

민들레는 꽃이 피기전의 뿌리를 그늘에 말려 잘 썬 것을 달여 복용하면 해열, 기관지염, 늑막염, 담낭염, 소화불량, 변비, 위산 결핍증에 효험이 있다. 줄기와 잎의 유액은 종기에 붙이기도 한다.

민들레(서양민들레 포함)는 잔디나 목초지에 많이 발생되어 잔디의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목초의 생육을 부실하게 만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원 등에 발생한 민들레는 호미나 갈고리 등으로 뿌리가 남지 않도록



씨앗

손제초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잔디밭이나 화분과 목초지에 대면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디캄바액제나 메코프로프록제 등으로 경엽처리하면 효과적이다. 이들 약제는 잎이 넓은 광엽작물에는 약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살포할 때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바람이 없는 오전에 살포하거나 노즐에 깔대기를 씌어 약액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고 약제살포 전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빗물을 타고 흘러가서 약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민들레 종자의 발아를 억제하기 위한 토양처리형 제초제는 일반적인 발제초제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Y